

여성운동 대토론회 기획안(최종)

여성연대한판 둘째날(1998년 8월 22일), 대학내 여성운동에 대한 2차례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들어가며....

“우리가 왜, 현 시점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려는가?”

경제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면서 우리는 전사회적인 보수화의 경향을 볼 수 있다.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파고 들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여성운동이 거뒀던 많은 성과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운동이 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사회적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여성운동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가? 그러나 어느 운동이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변화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여학생운동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전체'운동에 단순히 복무하는 운동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이론을 가지고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여성운동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들을 해왔다. 그리고 그 어느 세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왔다.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현 좌표를 점검할 때이다. 자,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주장하는 '독자성'이 무엇이며, 실천적으로 올바른 길 - 물론 이것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 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혹시 우리는 단일한 여성운동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에, 다른 운동 세력으로부터 받던 비난 - 비판이 아닌!! - 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차이'와 '연대'를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예전 여성운동가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자매애를 온몸으로 느끼는 동안 서로에 대한 비판력을 억제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다른 동지들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이야말로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추동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여성운동이 정지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적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문제들 - 이슈와의 문제, 조직적 체계의 문제, 대내/외적 연대의 문제들을 언어적인 악순환에서 끄집어내 한번 치열하게 논쟁해보고 앞으로 여성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이번 여성운동 대토론회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회 1 : 현실전망과 이후의 방향성 (내용성에 대한 문제)

☞ 여성운동이 어떠한 것들을 주되게 담론화하였으며, 다른 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우리

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① 정세분석 - '대학'이라는 공간과 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

- 대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에 조명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위치는 많이 변하고 있다. 이 속에서 여대생들은 사회적으로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가? 가부장적 권력이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회계층적 위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것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건으로 작용하는가?

②대학내 여성운동의 정치적 의제와 그간 운동의 성과들

- 90년대 중반부터 대학내 여성운동판은 급격히 바뀌었다. 현재 들꽃/돌꽃모임, 여성연대회의, 살맛나는 세상, 여대생먹고살기대책위가 결성/활동 중이며, 이전에 있었던 전여대협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여성운동이 조직화되는 방식은 주로 어떠한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현재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성폭력과 여성노동이다. 이것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운동의 주요 의제가 되었는가? 왜 현 시기 우리에게 중요하며 학내 여성운동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 빈민여성문제나 정신대 또는 기지촌의 문제는 소규모적으로 진행되면서 학내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③대학내 여성운동의 현 주소

ㄱ)대학의 여성운동과의 관계 ㄴ) 다른 운동과의 관계

대학내 여성운동(여성 사회단체와의 관계)으로서 또는 대학내 여성운동(대학내 다른 운동과의 관계)으로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조명해보자. 연대를 해야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상과 실천적 방향에는 의견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어쩌면 '연대'가 지나치게 추상화된 논리로만 논의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현재의 사회적인 변화들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전체' 운동판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변하는 운동판은 즉 우리 운동과 다른 운동 사이의 관계도 변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④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성 - 연대의 원칙과 조건, 그리고 실천의 전략들....

진행방식 : 발제자 4명 정도가 위의 질문들에 모두 답변할 수 있는 발제문을 쓴다. 사전에 각자의 내용은 충분히 공유가 되어 서로의 의견차이가 들어날 수 있도록 발제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또한 발제문도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제제안 : 고려대 여성위원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먹고살기대책위, 살맛나는 세상

토론회2 : 여성운동의 방법론 및 조직체계에 대하여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총여학생회의 유의미성/무의미성에 대한 논쟁으로 체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불어졌으며 기존 운동권의 중앙집권제를 벗어난 여성주의적 운동 방식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와 한계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인재재생산의 문제가 많은 운동가들을 괴롭히고 있다. 현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현 주소는?

①여성주의적 조직론은 무엇인가?

몇 해 전부터 학생회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으며 또한 총여학생회도 그 화살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학생회의 간접민주주의를 넘어선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총여학생회의 대안적 형태로서 위원회 내지는 자치단체들의 연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논쟁은 여전히 유효한가?

②여성주의적 조직의 내부체계에 대한 문제

여성주의적 조직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내부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운영(의사결정) 부위와 집행 부위가 확고히 분리된 관료주의적 체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성주의적 체계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체계에서 축적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야 하는가? 혹시 '기존 체계에 반대하는 것 = 무체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③연대체 또는 '중앙'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여기에서 '중앙'조직이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여학생운동의 최초의 전국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전여대협을 비롯해 현재에는 여성연대회의, 살맛, 먹살, 들꽃/돌꽃 등의 연대모임들이 많다. 연대체로서 이들이 여태까지 수행한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중앙' 조직으로서 연대모임이 역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 다른 학생정치조직들은 의장과 중앙집행부를 갖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권위가 갖는 강제성과 자발성이 빠질 수 있는 무책임 사이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④대표자회의의 의미성

잠시 추진되다가 해소가 된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평가해보자. 그 의미성들을 아직도 유효한가? 대표자회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여성주의적 조직의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면서 토론회를 마쳤으면 한다.

진행방식 : ①②③은 각 학교 상황마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분 발제에 가장 적당한 학교/개인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한 학교가 한 소주제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부분(다른 학교/개인의 발제)에 대해서는 논평을 해준다. ④에 대해서는 모든 발제자들이 답변한다.

발제제안 : 연세대 총여학생회, 관악여성연대모임, 여성연대회의, 이와여대 여성위원회

준비 사항 :

○발제자와 대토론회팀은 앞으로 약 3차 간의 회의를 거치게 되며, 첫 모임은 8월 13일 연세대 총여학생회실에서 있었으며, 두 번째 회의는 8월 16일 10시 동국대 총여실에서 있습니다. 이 날까지는 발제문 초안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장소 및 물품 : 장소는 패널 토론이 가능한 강의실이나 소강당 정도. 필요물품은 마이크 3개 정도, 책상 및 의자 등. 외부/내부 선전이 필요함.

○자료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글 : 대학내 여성운동사, 토론회준비팀의 기획글, 발제문 8개